

“젊은 친구가 정통 트로트 부르니 예뻐가 봐요”

‘미스트롯’ 송가인

행사·예능 중흥무진 ‘전성시대’
아이돌 부럽지 않은 사랑 꿈 같다
‘여자 나훈아’ 애칭 좋아

그야말로 ‘송가인 전성시대’이다. 비지상과 예능 시청률 기록을 새로 쓴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롯’에서 진(眞)을 차지한 가수 송가인(본명 조은삼·33)은 요새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낸다.

최근 광화문에서 만난 송가인은 “하루 2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다. 말로만 들던 ‘킹거 투혼’ 중”이라고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수교육조교이자 무속인인 어머니 송순단 씨의 권유로 ‘미스트롯’에 참가했다는 송가인은 초반까지만 해도 예선에서 탈락할 줄 알았다고 했다.

“방송이니 ‘짜고 치지’ 않을까 했죠. 제가 큰 기획사 소속도 아니고요. 또 요새 트렌드가 예쁘고 몸매 좋은 친구들이 하는 세미 트로트 위주잖아요. 제가 하는 정통 트로트는 알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선 1등 하고 깜짝 놀랐죠.”

그는 “‘미스트롯’ 전까지 ‘너는 얼굴과 몸매 때문에 안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수입도 없어서 비너를 만들어 팔며 죽을 만큼 힘든 나날도 지나왔다”라며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니 정말 꿈 같다”라고 했다.

무엇이 ‘미스트롯’, 그리고 송가인에 대중이 열광하게 했을까.

송가인은 “서민의 슬픔을 달래주는 트로트가 어르신들께 단비가 된 것 같다. 최근 세미 트로트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젊은 친구가 나와 1930~1950년대 정통 트로트를 부르니 예쁘게 봐주신 것 같다”라고 자체 분석했다. 물론 젊은 팬도 늘었다. 행사장마다 ‘부대’처럼 따라오는 20대 팬들에게 그는 “아니, 아이들을 좋아하지 왜 나를 좋아하니”라고 묻는다며 웃었다.

물론 송가인에게 ‘미스트롯’ 전 과정이 즐겁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 “춤 취본 적이 없어 두 번째 팀 미션이 참 힘들었는데, 군부대 미션을 하니



팀 미션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6·7곡을 메들리로 하면서 아이돌 안무까지 넣어야 했으니까요. 특히 ‘티어스’(tears)를 부를 땐 부담이 너무 컸어요. 목이 안 좋아 병원에도 다녀오고. 그런데 무대에서 기적적으로 목소리가 나왔어요.”

송가인 등 주요 참가자들은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 한창이다.

송가인은 “콘서트에 가면 아이들이 부럽지 않다. 피켓에 야광봉에 깃발에 팬들의 힘이 엄청나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팬들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인 콘서트 욕심도 낮겠다는 질문에는 “단순히 유명해져서 콘서트를 하는 것은 제가 용납이 안 된다. 히트곡이 있어야 그런 무대

를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며 “정통 트로트 가수라는 스타일을 오래도록 잘 가져가고 싶다”라고 진중한 모습을 보였다.

2012년 싱글 ‘산바람아 강바람아 사랑가’로 데뷔한 진도 출신 송가인은 원래 판소리를 전공했다. 그러다 어머니 권유로 트로트로 전향했다.

“어머니도 예술을 하시는 분이요. 보니까 좋은 것은 피해야겠음 미리 얘기해주세요. 좋은 것은 미리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웃음) 엄마가 참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뭘 하든 건강하게만 하라고요. 새로운 장르를 도전하는 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요. 아, 맘 놓고 해도 되겠구나.”

최근 ‘라디오 스타’, ‘비디오 스타’, ‘풀 뜯어먹

는 소리’, 그리고 ‘아내의 맛’ 확장판까지 예능에서도 중흥무진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 송가인의 구수한 입담 역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송가인은 모녀 관계에 대해 “호랑이 엄마랑 호랑이 새끼”라고 정의(?)했다.

예능의 재미에도 한창 빠진 송가인이지만, 역시 본업이 가장 큰 과제이자 꿈이다. 그는 어려웠던 시기 심수봉, 김연자, 김용민, 이미자, 주현미 콘서트 실황을 보며 몇 시간이고 따라붙었다고 했다.

송가인은 “히트곡을 많이 내고, 세월이 흘러 먼 훗날에는 저만의 애정도 갖고 싶다”라며 “그게 ‘여자 나훈아’이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tvN ‘강식당2’ 첫 방송 7%대 시청률 기록 선전

어딘가 어수선하지만 정겨운 멤버들 그대로 돌아온 tvN ‘강식당2’가 첫 방송부터 7%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10분께부터 방송된 나영석 PD의 신규 예능 ‘강식당2’는 전국 시청률 7.7%(유료가구)로 나타났다.

전날 방송에선 강호동과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송민호 등 워너 멤버들과 새롭게 합류한 피오가 경주에 식당 문을 열고 떡볶이와 가락국수, 팔팔수 등을 파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백종원 대표보다 대표를 찾아가 떡볶이 위에 튀김 4종류를 올린 ‘과트 떡볶이’ 등 신메뉴를 배운 뒤 식당을 개업했다. 서로 좌충우돌하면서도 밥을 입에 떠 넣어주는 등 멤버들 간 ‘케미’(케미스트리·공감)는 여전한 관전 포인트였다.

같은 날 밤 11시부터 방송된 스타 형제자매들의 관계 회복 예능 TV조선 ‘부러더 시스터 1’화는 1.455%(유료가구)를 기록했다. 동시대 방송된 MBC TV ‘나 혼자 산다’는 8.5%~9.8%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규현, JTBC2 ‘런웨이브’ 진행 맡아



JTBC2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된 가수 겸 방송인 규현(사진)이 오는 23일 0시 20분 새로 선보일 뮤직토크쇼 ‘런웨이브’의 진행을 맡는다고 30일 밝혔다.

‘런웨이브’는 아이돌과 관객이 한층 깊이 있는 대화와 새로운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 뮤직토크쇼’를 지향한다. 아이돌의 아티스트 면모는 물론 앨범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된다.

이 프로그램은 JTBC 디지털 스튜디오 룰루랄라와 LG유플러스가 공동제작하며, ‘U+아이돌 라이브’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규현은 소집해제 후 tvN ‘강식당2’, ‘신서유기’, ‘잔내투어’ 등 다양한 예능 출연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남도 해방을 외치다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어트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버스 도도 2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컵 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25 빠샤 매거진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모아보기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육탐방의 문제아들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퍼퓸	05 스트레이트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드라마 특선 국민의 일꾼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5 검법남녀 시즌2(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형
07:00 로보카 폴리	13:00 다큐 오늘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30 뽀뽀뽀 뽀로로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음식기행 1부 구름의 땅, 원난의 맛을 찾아서>
08:30 몬카트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여수의 사랑 1부 연인을 만나거든 남도>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30 뽀뽀뽀 뽀로로(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마사와 곰	15:45 출동! 슈퍼워스(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15 출동! 슈퍼워스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55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당동당 유치원1~2(재)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노력을 경주한다면 극복한다. 48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 60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72년생 조용히 추진함이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다. 84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것이 실속이다. 행운의 숫자 : 47, 80
丑	37년생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49년생 외의 일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61년생 일이 지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73년생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85년생 무거운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35
寅	38년생 웃음이 얼굴에 가득할 것이다. 50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62년생 중형무진 할 수도 있다. 74년생 강하고 짚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하라. 86년생 내실을 기했을 때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1, 29
卯	39년생 목욕히 정도를 걸으면 그만이다. 51년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63년생 가까운 이가 문제점의 해결을 호소하리라. 75년생 길흉이 마주 대하고 있으니 판단과 선택에 신중하라. 87년생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니 준비를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7, 66
辰	40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52년생 비슷한 처지여서 쉽게 공감 하리라. 64년생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양태이다. 76년생 별 것은 없으니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88년생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21, 65
巳	41년생 정리하고 단정해 보자. 53년생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불합리하다. 65년생 초기 계획과는 약간 다르게 이행 될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함이 순리이다. 89년생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6, 55

6월 3일 (음 5월 1일 辛未)

午	42년생 지연되었던 난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54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동안에 미흡했던 점이 해소될 것이다. 66년생 제반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78년생 입으로 인한 화근을 짓지 말라. 90년생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9, 99
未	43년생 착오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다. 55년생 간단하게 처리하라. 67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79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킬지언만 한다. 91년생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는니라. 행운의 숫자 : 70, 30
申	44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가 보이니 매사에 신중하라. 56년생 변화를 꾀해 보라. 68년생 두루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용이하리라. 80년생 부진함을 만회할 수 있는 상상의 운세가 다가오고 있다. 92년생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한다. 행운의 숫자 : 42, 28
酉	45년생 알고도 내버려 둔다면 큰 코 다친다. 57년생 저변의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69년생 정도만 걸으면 아무런 하자도 없다. 81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적기에 쓸 수 있다. 93년생 예외로 치부해 왔던 바가 중심에 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8, 83
戌	34년생 깊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겹쳐서 번거롭겠다. 46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다 헤쳐 나갈 수 있다. 58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70년생 임시방편적 인 대처는 오래가지 못 하리라. 82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26
亥	35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차지할 수가 없다. 47년생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니 계획대로 행하라. 59년생 충분히 무리되었다. 71년생 한 번 모순에 빠지진 연쇄적인 과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국상이다. 83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19, 0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